

대학 1학년생의 정서적·사회적 고독: 한국해양대학교 199 학번 학생들을 중심으로

신 순 옥*

Emotional and Social Loneliness among Korea Maritime University Freshmen

Shin, Soonock

목 차	
Abstract	IV. 연구 결과
I. 대학생과 고독	V. 요약 및 논의
II. 고독의 정의와 측정	참고문헌
III. 연구 방법	부록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psychosocial correlates of emotional and social loneliness among freshmen in Korea Maritime University.

Several key findings emerged from this investigation. First, living arrangements and participation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had nothing to do with emotional and social loneliness of freshmen. However, having a religion, or any heterosexual friend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low level of loneliness and isolation in emotional and social aspects. Moreover, good relationship with father was found to be related to less loneliness and isol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terms of sex difference, male freshmen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than female students in emotional and social isolation.

* 한국해양대학교 교양과정부 강사(심리학)

I. 대학생과 고독

고독은 인간 모두가 지니고 있는 심리적 문제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 따르면 고독이 후기 청소년기 또는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ubenstein & Shaver, 1982). 일반적으로 노년기가 가장 외로운 시기로 짐작되나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사회생활이 안정되어 가고, 더 나은 사회 기술을 습득하며, 또 인간관계와 주변 환경에 대해 현실적인 기대를 갖기 때문에 외로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초기 성인기에는 직장을 잡거나 대학에 입학하여 성인으로서 독립할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많은 사회 심리적 전환을 직면하기 때문에 심한 고독과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대학 생활이 외적으로는 엄격한 규율과 규제가 적은 자유와 낭만이 가득 찬 곳으로 기대되지만 실제로는 고등학교와 비교하여 더 크고 집단적인 환경 안에서 다양한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교우들과 새로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뜻한다.

대학생들이 고독과 교우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연구 보고가 국내외에 많이 있다. 예를 들어 권석만(1995)에 의하면 대학생들이 겪는 고독의 문제는 상담 장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한다. “외롭고 쓸쓸하다”는 일반적인 고독감과 더불어 다양한 인간관계 및 대학생활 적응의 문제가 복합되어 나타난다. 특히 저학년 학생 중에서 ‘대학 내 어디에도 소속감을 느낄 수 없다, 강의만 듣고 집으로 가곤 한다, 다들 잘 어울려 다니는데 나만 외톨이다. 점심시간이나 공강 시간이 두렵다. 혼자 배회하고 혼자 점심 식사하는 모습을 주변 동료들이 볼까 신경 쓰이고 두렵다’ 등의 고민을 상담자에게 호소한다고 한다.

Cutrona (1982)는 미국 UCLA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조사를 하였다. 이 연구에 참석한 일학년 학생들은 입학 후 2주, 7주, 그리고 7개월 후에 그들이 어느 정도 외로움을 느끼는지 질문을 받았다. 학기가 시작한 2주 후에는 75%의 신입생들이 학기 초기에 가끔 외로움을 느낀다고 보고했다. 또 40% 이상의 신입생들은 보통에서 심한 정도의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다행히 입학 후 7개월 후에는 대부분의 신입생들이 외로움을 극복했지만 25%의 신입생들은 외로움을 경험했다.

이처럼 흔히 나타나는 대학생의 고독이 미치는 영향 중의 하나는 학업부진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권석만(1997)의 주장에 의하면 대학 생활에서 느끼는 고독과 고립감은 대학생활에 대한 흥미와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생활의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강화를 받지 못하고 고독감을 느끼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등교를 등한시하거나 잦은 결석을 하게 되어 수업의 기회를 잃게 된다. 또 강의나 수업 과제물 및 시험에 대한 정보를 놓치게 되고 다른 학생들과 정보를 교환하지 못하게 되면 좋은 학점을 얻지 못하게 되고 좌절과 낙심을 겪게 되며 더욱 소외감과 위축감을 느끼게 된다.

이밖에도 고독의 문제는 우울증이나 알콜중독과 약물남용, 심지어는 대학 내의 자살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 (McWhirter, 1990). 주위 가족이나 친지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면 정서적 지지와 위안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대학 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좌절에 쉽게 혼란을 느끼며 우울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술이나 약물중독에 빠질 수 있다.

II. 고독의 정의와 측정

고독은 '홀로 있어 외롭고 쓸쓸함을 느끼는 상태'라고 사전에 정의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고독은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고 친밀한 관계가 부족할 때 느끼는 고통이다(Sears et al., 1995). 이 부족은 질적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갖고 있는 관계가 피상적이거나 혹은 원하는 것보다 덜 만족스러울 때 느끼는 감정이다. Peplau 와 Perlman (1982)은 고독을 사회적 접촉에 대한 기대 수준과 성취 수준간의 괴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고독의 연구자들은 고독이 매우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한다(Vincenzi & Grabosky, 1989; Weiss, 1973). Weiss(1973)는 고독을 정서적 고독(emotional loneliness)과 사회적 고독(social loneliness)으로 구분한다. 정서적 고독은 인간관계에서 친밀감이나 애정과 관련된 측면을 뜻한다. 예를 들면 어린이에게는 부모와의 관계가 불만족스럽거나, 성인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애인, 친구가 없거나 관계가 불만족스러울 때 경험된다. 반면에 사회적 고독은 친구 집단이나 동료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사회적 소속감이나 집단의식이 부족할 때 느끼는 외로움이다. 예를 들어 새로 결혼한 신혼부부가 낯선 도시에 직장을 얻어 이사했다면 정서적 고독은 안 느낄지라도 새 지역사회에서 친구를 사귀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회적 고독을 느낄 것이다. 반면에 애인과 헤어진 남자는 가족과 친구들이 옆에 있어 사회적 고독은 안 느끼더라도 애인과의 이별 후에 강렬한 정서적 고독을 느낄 것이다.

또한 고독은 지속 기간과 상황에 따라 만성적 고독(chronic loneliness)과 일시적 고독(temporary loneliness)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만성적 고독은 처해 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장기간 느끼게 되는 분리감을 의미한다. 반면, 일시적 고독은 중요한 인간 관계의 상실과 같은 계기를 통하여 반응적으로 느끼게 되는 일시적인 분리감을 뜻하며 상황적 고독이라고도 한다.

고독은 경험되는 상황과 차원에 따라 5가지로 분류되기도 한다(Sadler, 1993). 첫번째 고독은 우주적 차원(cosmic dimension)의 고독으로 이것은 거대한 우주와 자연으로 분리된 개체라는 의식으로서 실존적 고독 또는 형이상학적 고독으로 불리기도 한다. 둘째는 문

화적 차원(cultural dimension)의 고독으로서 자신이 익숙해져 있던 문화적 환경으로부터 떨어져 낯선 사회 안에 있게 될 때 느끼는 고독감이다. 셋째는 사회적 차원(social dimension)의 고독으로서 한 사회 집단으로부터 느끼는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이 상실되었을 때 느끼는 고독이다. 넷째는 대인관계적 차원(interpersonal dimension)의 고독으로 중요한 대인관계가 단절되거나 약화되었을 때 느끼는 고독이다. 다섯째는 심리적 차원(psychological dimension)의 고독으로 자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과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고독의 측정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척도는 UCLA고독 척도이다. 이 척도는 Russell, Peplau 및 Furguson (1978)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으며 Russell, Peplau 및 Cutrona (1980)에 의해 개정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UCLA 척도는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며 문항 구성에서 심한 고독감을 경험하는 임상적 집단의 체험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단일한 총점에 의해서 고독의 정도가 평가되기 때문에 다차원적 개념인 고독에 대한 세부적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권석만, 1997).

Schmidt 와 Sarmat (1983)는 변별적 고독척도(Differential Loneliness Scale)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낭만적-성적 관계, 우정의 관계, 가족 관계, 대단위 소속집단 및 공동체와의 관계를 포함한 네 가지 유형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독을 평가한다. 또 Scalise, Ginter 및 Gerstein(1984)에 의해 개발된 고독 평정 척도(Loneliness Rating Scale)는 고독의 네 가지 정서적 차원인 결핍감, 고립감, 동요감, 낙담감을 평가한다. 이러한 척도는 개발자가 특정한 연구 목적을 위해 제작한 것으로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고독의 일반적 현상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또 정상적 고독감과 부적응적 고독을 구분할 수 있는 변별 기준을 제공하지 않아 점수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Vincenzi 와 Grabosky(1989)는 Weiss(1973)의 이론에 근거하여 정서적, 사회적 고독 척도(Emotional/Social Loneliness Inventory: ESLI)를 개발하였다. 정서적, 사회적 고독 척도는 고독과 관련된 네 가지 측면인 정서적 고독(emotional loneliness), 사회적 고독(social loneliness), 정서적 고립(emotional isolation), 그리고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을 측정한다. Weiss(1973)는 고독을 정서적 고독과 사회적 고독으로 구분하는데 정서적 고독은 인간관계에서 친밀감이나 애정과 관련된 측면을 뜻하며, 사회적 측면은 사회적 통합과 가치와 관련된 측면을 뜻한다. Vincenzi와 Grabosky(1989)는 이러한 구분에 근거하여 고독의 정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측정하며 고독과 고립을 구분한다. 그들에 따르면 고독은 고립의 지각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며, 고립은 사회적 교류와 접촉이 결핍된 객관적 상태를 의미한다. 정서적, 사회적 고독척도는 이렇게 고독의 다양한 면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이 척도의 점수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특정한 검사 점수가 얼마나 심각한 고독의 정

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권석만, 1997).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1999년 가을 학기에 '인간과 심리'를 교양 선택으로 수강한 한국해양대학교 199학번 1학년 204명이었다. 이들 중 남학생은 148명이었고 여학생은 56명이었다. 참여자들의 나이는 최소 18세에서 최고 23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19.05세(표준편차: .63)였다. 남학생의 평균 연령은 19.02세(표준편차: .66)였고 여학생의 평균연령은 19.12세(표준편차: .54)였다.

이 연구는 1999년 11월 말에 연구자가 강의를 맡고 있는 '인간과 심리' 수업 시간 중에 두 분반에서 실시되었다.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의식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 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으며, 또 자료는 익명이므로 비밀이 보장되니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 연구 조사에는 물론 2, 3, 4 학년 학생들도 소수 참여 하였지만 결과 분석에서는 제외되었고 오직 일학년 응답자들만 포함되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Vincenzi와 Grabosky(1989)가 개발하고 권석만(1997)이 한국판으로 제작한 정서적·사회적 고독척도(Emotional/Social Loneliness Inventory; ESLI)를 사용하였다. 정서적·사회적 고독척도는 고독과 관련된 네 가지 측면인 정서적 고독(emotional loneliness), 사회적 고독(social loneliness), 정서적 고립(emotional isolation), 그리고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을 측정하고 있다.

고독척도는 주관적으로 체험된 고독감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각 문항에 대해 '현재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자주 그와 같이 느끼는지'를 묻는다. 반면 고립척도는 응답자가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인간관계의 상황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각 문항에 대해 '현재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자주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지'를 묻는다.

아울러 각 척도의 15문항은 각각 정서적 측면을 측정하는 8개의 문항과 사회적 측면을 측정하는 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응답자는 개별 문항의 내용을 경험한 빈도에 따라서 Likert 4점 척도(0점: 거의 그렇지 않다; 1점: 가끔 그렇다; 2점: 종종 그렇다; 3점: 자주 그렇다)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결과적으로 정서적·사회적 고독척도는 4개의 하위

신 순 욱

점수 즉, 정서적 고독 (8문항), 사회적 고독 (7문항), 정서적 고립(8문항), 사회적 고립(7문항)의 점수로 계산할 수 있다.

권석만(1997)은 정서적·사회적 고독척도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alpha), 반분 신뢰도,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계산하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3명에게 같은 검사를 2주 간격으로 실시하여 계산하였다. 정서적 고독을 측정하는 8개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는 .80이었으며 반분 신뢰도는 .75였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7이었다. 사회적 고독을 측정하는 7개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는 .79였으며 반분 신뢰도는 .74였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6이었다.

정서적 고립을 측정하는 8개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는 .76이었으며 반분 신뢰도는 .74였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0이었다. 사회적 고립을 측정하는 7개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는 .79였으며, 반분 신뢰도는 .77,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9였다.

정서적·사회적 고독척도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UCLA 고독척도 점수와 상관계수가 계산되었다. 정서적·사회적 고독척도의 하위점수는 UCLA 고독척도 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을 보였다. 고독 점수(.78), 정서적 고독 점수(.76), 고립 점수(.75)는 UCLA 고독척도 점수와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다. 반면에 사회적 고립 점수(.63)와 사회적 고독 점수(.67)는 낮은 상관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응답자에 관한 2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설문지에는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적 정보, 가족 관계, 부모와의 관계, 학교 생활과 교우관계, 이성 관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IV. 연구 결과

본고에서는 참여자의 특성을 4개의 영역, 즉 인구 통계학적 특성, 가족 관계 및 경제 상태, 교우관계, 이성 관계 등을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한다. 또 이러한 특징들과 정서적·사회적 고독척도 사이에 의미있게 나타난 분석 자료도 제시하며 정서적·사회적 고독척도의 하위 점수별 평균 및 남녀 차이도 제시한다.

1. 인구 통계학적 특성

1) 소속 대학

응답자를 소속된 단과대학별로 분석해보면 공과대학이 107명(52.5%), 해양과학 기술대학이 62명(30.4%), 국제대학이 30명(14.7%), 그리고 해사대학이 5명(2.5%)으로 가장 적었다.

2) 종교

응답자의 종교는 무종교가 104명(51.4%)으로 가장 많았고 불교가 40명(19.6%), 기독교가 37명(18.1%), 천주교가 17명(8.3%)이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 95명과 무종교라고 응답한 104명의 정서 고독, 정서 고립, 사회 고독, 사회 고립 점수를 비교하였다. 결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무종교인 학생들의 평균 점수보다 4척도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낮았다.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종교 유무와 정서적 사회적 고독

하위 점수	종교 유무				t	유의수준
	있다 (n=95)		없다 (n=104)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정서고독	5.14	3.77	6.51	4.62	-2.29	.02
정서고립	5.40	3.88	7.39	4.98	-3.12	.002
사회고독	5.69	3.89	6.95	4.36	-2.13	.03
사회고립	4.04	3.74	5.38	4.53	-2.26	.02

3) 성장 지역 및 숙식 형태

응답자 중 141명(69.1%)이 주된 성장 지역이 대도시라고 답했으며 중소도시는 44명(21.6%), 읍은 12명(5.9%), 면 이하는 7명(3.4%)이었다. 현재 숙식 형태는 자택이 126명(61.8%), 하숙이 10명(4.9%), 자취가 31명(15.2%), 기숙사가 29명(14.2%), 친지 집이 8명(3.9%)이었다. 부모와 함께 자택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 126명과 부모와 떨어져 하숙, 자취, 기숙사 등에 살고있는 학생 78명의 정서 고독, 정서 고립, 사회 고독, 사회 고립 점수를 비교하였다. 결과는 네 척도 모두에서 두 집단의 평균 점수는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숙식 형태는 대학 1학년 학생이 느끼는 외로움과 별 관계가 없다는 Cutrona (198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2. 가족 관계 및 경제 상태

1) 부모의 생존 여부 및 관계

응답자의 176명(86.3%)이 양친이 생존한다고 답했고, 부친 혹은 모친만 생존하는 학생은 17명(8.4%)이었고, 양친이 이혼 혹은 별거하는 학생은 10명(4.9%)이었다. 응답자와 부모와의 관계를 5점 척도(1점: 매우 불만족, 2점: 불만족, 3점: 보통, 4점: 만족, 5점: 매우 만족)로 평정하게 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아버지와의 관계 만족도는 평균이 3.36점(표준편차: 1.01)이었으며 어머니와의 관계는 평균이 3.94점(표준편차: 0.83)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에서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점수 차이는 없었다.

모친과의 관계에서 과반수 이상인 106명(52.2%)이 '만족'이라고 답했으며 이어서 '매우 만족'이 48명(23.6%), '보통'이 40명(19.7%)이었다. 흥미있는 결과는 오직 6명(3.0%)이 '불만족'이라고 답했고 '매우 불만족'은 3명(1.5%)뿐 이었다.

대조적으로 부친과의 관계는 72명(36.9%)이 '만족'이라고 답했으며 이어서 '보통'이 63명(32.3%), '불만족'이 30명(15.4%)이었다. '매우 만족'이라고 답한 학생들은 22명(11.3%)이었고 '매우 불만족'은 8명(4.1%)이었다. 모친과의 관계는 평균적으로 만족한 편에 속하므로 부친과의 관계 만족도와 정서, 사회적 고독 및 고립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부친과의 관계에 '불만족' 혹은 '매우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38명과 '만족' 혹은 '매우 만족'을 표한 응답자 94명의 정서 고독, 정서 고립, 사회 고독, 사회 고립 점수를 비교하였다. 결과는 부친과의 관계에 불만족을 표한 집단이 부친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나타낸 집단의 평균점수보다 정서 고독, 정서 고립, 그리고 사회고독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p < .05$). 이 결과는 Weiss(1973) 이론과 일치한다.

표2: 부친과의 관계 만족과 정서적·사회적 고독

하위 점수	부친과의 관계				t	유의수준
	불만족 (n=38)		만족 (n=94)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정서고독	8.23	5.65	5.41	3.94	3.26	.001
정서고립	8.18	4.78	6.32	4.83	2.00	.04
사회고독	8.07	4.85	6.35	4.14	2.06	.04
사회고립	6.00	4.83	4.41	4.14	1.89	.06

2) 가족 화목도와 만족

가정의 분위기에 대해 '화목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94명(46.3%)으로 가장 많았고 '그저 그렇다'가 42명(20.7%), '갈등이 약간 있다'가 38명(18.7%), '매우 화목하다'가 25명(12.3%)이었다. '심한 갈등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명(2.0%) 뿐이었다.

현재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1점: 매우 불만족, 2점: 불만족, 3점: 보통, 4점: 만족, 5점: 매우 만족)로 평정하게 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만족도는 평균이 3.62점(표준편차: .83)이었으며 남학생들의 만족도는 평균이 3.70점(표준편차: .76)이었고, 여학생 평균은 3.43점(표준편차: .97)으로 나타났다.

3) 가정의 사회경제 계층 및 학비 충족도

가정의 사회 경제 계층에 대해 147명(72.1%)이 중류에서 중 상류에 속한다고 대답했으

대학 1학년생의 정서적·사회적 고독: 한국해양대학교 199 학번 학생들을 중심으로

며 55명(26.9%)은 중하 내지 하류에 속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과반수가 넘는 113명(55.4%)이 생활비와 학비 충족도가 보통이고, 충족이 42명(20.6%), 매우 충족이 7명(3.4%)이었다. 반면에 부족하다고 응답한 숫자가 36명(17.6%)이었고 6명(2.9%)은 매우 부족하다고 답했다.

3. 학교 생활 및 교우관계

1) 과외활동

응답자 중 122명(59.8%)이 하나 혹은 두개 정도의 과외활동(서클, 종교, 봉사 및 취미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고 3가지 이상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전체 5명(2.5%)뿐이었다. 반면에 77명(37.7%)이 없다고 응답했다. 과외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77명과 하나 이상에 참여하는 125명의 정서 고독, 정서 고립, 사회 고독, 사회 고립 점수를 비교하였다. 결과는 네 척도 모두에서 과외활동에 참여하는 집단과 전혀 참여하지 않는 집단의 평균 점수는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동아리 가입과 같은 과외활동은 대학 1학년 학생이 느끼는 외로움과 별 관계가 없다는 Cutrona(198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2) 학교 수업 결석

학교 수업에 어느 정도 결석하느냐는 질문에 128명(63.1%)이 '거의 안함'에 답했고 '가끔'이 50명(24.6%), '종종'이 11명(5.4%), '자주'가 8명(3.9%), '항상'이 6명(3.0%)이었다. 결석을 거의 안 한다고 응답한 128명과 나머지 가끔, 종종, 혹은 자주하는 75명의 두 집단의 정서 고독, 정서 고립, 사회 고독, 사회 고립 점수를 비교하였다. 결과는 결석을 하는 집단의 사회 고독 평균 점수(7.31; 표준편차: 4.17)가 결석을 거의 안 하는 집단(평균: 5.85, 표준편차: 4.21)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t = -2.39, p < .05$). 그러나 다른 세 척도에서는 두 집단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3) 교우관계

대학내 친구 숫자를 살펴보면 130명(64.0%)이 '10명 이상'이라고 답했고 32명(15.8%)이 '5-10명', 29명(14.3%)이 '3-5명', 10명(4.9%)은 '1-2명'이라고 답했으며 '없음'이라고 대답한 학생들은 2명(1.0%)이었다.

대학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에 대하여 89명(43.8%)이 '자주'라고 답했고 51명(25.1%)이 '항상', 36명(17.7%)이 '종종', 21명(10.3%)은 '가끔'이라고 답했으며 '거의 없음'이라고 대답한 학생들은 6명(3%)이었다.

현재 친구관계 만족도를 5점 척도(1점: 매우 불만족, 2점: 불만족, 3점: 보통, 4점: 만족, 5

점: 매우 만족)로 평정하게 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이 3.70점(표준편차: .81)이었으며 남학생들의 만족도는 평균이 3.70점(표준편차: .80)이었고, 여학생 평균은 3.68점(표준편차: .83)으로 성별의 차이가 없었다.

4) 이성 관계

응답자 중 이성 친구가 있는 학생들은 58명(28.4%)이었고, 없는 학생들이 144명(71.1%)이었다. 성별에 따라 분석하면 이성 친구가 있는 58명 가운데 남학생이 40명이고 여학생이 18명이었다. 반면에 남학생 응답자 가운데 78%인 108명이 이성 친구가 없다고 했으며 여학생은 38명(67.9%)이 없다고 했다. 이성 친구가 있는 응답자 58명의 현재 이성 관계 만족도를 분석하면 25명(43.1%)이 만족한다고 답했고 ‘매우 만족’이 17명(29.3%), ‘보통’이 10명(17.2%)이었다. 반면 ‘불만족’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6명 (10.3%)이었다.

이성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 58명과 없다고 응답한 146명의 두 집단의 정서 고독, 정서 고립, 사회 고독, 사회 고립 점수를 비교하였다. 결과는 이성 친구가 없는 집단이 이성 친구가 있는 집단보다 사회 고독, 정서 고독, 정서 고립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3: 이성 친구 유무와 정서적 사회적 고독

하위점수	이성 친구				t	유의수준
	있다 (n=58)		없다 (n=146)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정서고독	4.50	4.27	6.52	4.34	-3.02	.003
정서고립	4.12	3.45	7.47	4.69	-4.92	.000
사회고독	5.37	3.58	6.80	4.42	-2.18	.05
사회고립	3.96	4.33	5.17	4.20	-1.84	.06

4. 정서적, 사회적 고독

정서적 고독 점수는 고독척도의 8개 문항(1번~8번)의 단순 합으로 계산되며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24점 사이이다. Vincenzi와 Grabosky(1989)의 미국인 기준에 따르면 정서적 고독 점수가 5점 이하 일 때는 ‘전혀 또는 거의 고독감을 느끼지 않는다’, 6~10점 사이 일 때는 ‘평균적인 고독감을 느낀다’, 11~14점 사이일 때는 ‘평균 이상의 고독감을 느낀다’, 15점 이상일 때는 ‘심한 고독감을 느낀다’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 응답자들의 정서적 고독 점수를 점수대 별로 분석하면 0~5점 사이가 107명 (52.5%), 6~10점 사이가 66명(32.4%), 11~14점 사이가 21명(10.3%), 15점 이상이 10명 (4.9%)이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15.2%의 응답자들이 평균 이상 또는 심한 정서적 고독을 느끼고 있음을 뜻한다. 물론 이러한 결과 해석은 미국인의 기준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신

중을 요한다. 아울러 응답자들 전체의 정서적 고독 점수의 평균은 5.95점(표준편차: 4.40)으로 평균 이하의 고독 점수에 속하며 남학생(평균: 6.30, 표준편차: 4.51)과 여학생(평균: 5.01, 표준편차: 4.01)의 집단 평균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t=1.87, p=.06$).

사회적 고독점수는 고독척도의 7개 문항(9번~15번)의 단순 합으로서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21점 사이이다. Vincenzi와 Grabosky(1989)의 미국인 기준에 따르면 사회적 고독 점수가 4점 이하일 때는 '전혀 또는 거의 고독감을 느끼지 않는다', 5~9점 사이일 때는 '평균적인 고독감을 느낀다', 10~13점 사이일 때는 '평균 이상의 고독감을 느낀다', 14점 이상일 때는 '심한 고독감을 느낀다'는 것을 뜻한다. 응답자들의 사회적 고독 점수를 점수대 별로 분석하면 0~4점 사이가 77명(37.7%), 5~9점 사이가 86명(42.2%), 10~13점 사이가 29명(14.2%), 15점 이상이 12명(5.9%)이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20.1%의 응답자들이 평균 이상 또는 심한 사회적 고독을 느끼고 있음을 뜻한다.

한편 응답자들 전체의 사회적 고독 점수의 평균은 6.40점(표준편차: 4.24)으로 평균 정도의 고독 점수에 속하며 남학생(평균: 6.74, 표준편차: 4.43)과 여학생(평균: 5.50, 표준편차: 3.60)의 집단 평균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t=1.87, p=.06$).

5. 정서적, 사회적 고립

정서적 고립 점수는 고립 척도의 8개 문항(1번~8번)의 단순 합으로서 점수 범위가 0점에서 24점 사이이며 사회적 고립 점수는 고립 척도의 7개 문항(9번~15번)의 단순 합으로 0점에서 21점 사이이다. Vincenzi와 Grabosky(1989)의 미국인 기준에 따르면 정서적 고립 점수와 사회적 고립 점수가 각각 5점 이하일 때는 '전혀 또는 거의 고립되어 있지 않다', 6~8점 사이일 때는 '평균적인 고립상태에 있다', 9~12점 사이일 때는 '평균 이상의 고립상태에 있다', 13점 이상일 때는 '심한 고독감을 느낀다'는 것을 뜻한다. 응답자 전체의 정서적 고립 점수를 점수대 별로 분석하면 0~5점 사이가 101명(49.5%), 6~8점 사이가 48명(23.5%), 9~12점 사이가 29명(14.2%), 13점 이상이 26명(12.7%)이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26.9%의 응답자들이 평균 이상 또는 심한 정서적 고립을 느끼고 있음을 뜻한다. 아울러 응답자들의 정서적 고립 점수의 평균은 6.51점(표준편차: 4.62)으로 평균 정도의 고립 점수에 속하였다. 또 남학생(평균: 7.14, 표준편차: 4.92)은 여학생(평균: 4.87, 표준편차: 3.24)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정서적 고립을 보여주었다 ($t=3.19, p=.002$).

사회적 고립 점수의 경우를 점수대별로 분석하면 0~5점 사이가 134명(65.7%), 6~8점 사이가 37명(18.1%), 9~12점 사이가 18명(8.8%), 13점 이상이 15명(7.4%)이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16.2%의 응답자들이 평균 이상 또는 심한 사회적 고독을 느끼고 있음을 뜻한

다. 한편 응답자들 전체의 사회적 고립 점수의 평균은 4.83점(표준편차: 4.26)으로 평균 이하의 고립 점수에 속하며 남학생(평균: 5.35, 표준편차: 4.29)이 여학생(평균: 3.46, 표준편차: 3.90)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사회적 고립 점수를 나타내었다 ($t=2.87$, $p=.005$). 정서적, 사회적 고독척도에 나타난 응답자들의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가 <표4>에 나타나 있다.

표4 : 정서적·사회적 고독척도의 점수별 성별 차이

점수	전체		남학생		여학생		t	유의수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정서 고독	5.95	4.40	6.30	4.51	5.01	4.01	1.87	.06
사회 고독	6.40	4.24	6.74	4.43	5.50	3.60	1.87	.06
정서 고립	6.51	4.62	7.14	4.92	4.87	3.24	3.19	.002
사회 고립	4.83	4.26	5.35	4.29	3.46	3.90	2.87	.005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교가 있는 일학년 학생들이 무종교인 동료 학생들보다 정서 고독, 정서 고립, 사회 고독과 사회 고립 점수가 훨씬 낮았다.

숙식 형태와 과외 활동 참여는 정서적·사회적 고독 및 고립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택에서 부모와 거주하는 일학년 학생들과 부모와 떨어져 하숙, 자취, 혹은 기숙사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비교했을 때 정서적, 사회적 고독척도의 네 척도 모두에서 차이가 없었다. 또 과외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전혀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도 네 척도 모두에서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Cutrona(1982)의 UCLA 신입생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대체로 어머니와의 관계에 만족했으며 불만을 표현한 학생들은 전체의 4.5% 뿐이었다. 또 남녀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관계 만족은 평균적으로 '보통' 정도였다. 흥미로운 발견은 Weiss(1973)의 이론처럼 아버지와의 관계 만족 정도는 정서적·사회적 고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이다. 아버지와의 관계에 '(매우) 불만족'한 학생들과 '(매우) 만족'한 학생들 두 집단을 비교했을 때 관계에 불만족한 학생들이 정서 고독과 정서 고립에서, 그리고 사회 고독에서 훨씬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학교 수업에 결석을 가끔 혹은 많이 하는 일학년 학생들은 결석을 거의 안 하는 학생들보다 사회 고독 점수가 월등히 높았다.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대학내 친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친구들과 시간을 자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친구와의 관계도 평균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성 친구의 유무는 정서적, 사회적 고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성 친구가 없는 학생들이 있는 학생들보다 정서 고독, 정서 고립, 그리고 사회 고독 점수가 월등히 높았다.

응답자의 15.2% 이상이 평균 이상 또는 심한 정서 고독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고독에서는 20.1%의 학생들이 평균 이상의 사회 고독을 나타내었고 고독척도에서 남녀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흥미있는 발견은 정서 고립과 사회 고립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훨씬 높은 고립 점수를 보여 주었다.

위의 연구 결과는 다른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때는 신중을 요한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한국 해양 대학교에 99학년에 입학하여 '인간과 심리'를 교양 선택으로 듣는 학생들에게만 국한했기 때문이다. 또 본 연구를 실시한 시기가 응답자들이 대학교에 입학하여 8개월 이상이 지난 때이므로 시간의 영향을 받을지도 모른다. 아마 학생들이 입학 초기에 연구에 참여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지도 모른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집단에 적용하는데 조심해야 되며 더 많고 다양한 표본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권석만 (1995). 대학생의 대인관계 부적응에 대한 인지 행동적 설명 모형. *학생 연구*(서울 대학교), 30(1), 61-79.
- 권석만 (1997). 대학생의 고독: 정서적, 사회적 고독척도의 개발. *학생 연구*(서울 대학교), 3(1), 15-28.
- Cutrona, C. E. (1982). Transition to college: Loneliness and the process of social adjustment. In L. A. Peplau & D. Perlman (Eds.),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pp.291-309). New York: Wiley Interscience.
- McWhirter, B. T. (1990). Loneliness: A review of current literature with implications for counseling and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8, 417 - 422.
- Rubenstein, C., & Shaver. P. (1982). The experience of loneliness. In L. A. Peplau & D. Perlman (Eds.),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pp. 291- 309). New York: Wiley Interscience.

신 순 욱

Sadler, W. A. (1993). The causes of loneliness. In A. Arkoff(Ed.), *Psychology and personal growth*. Boston: Allyn & Bacon.

Scalise, J., Ginter, E., & Gerstein, L. (1984). A multidimensional loneliness measure: The loneliness rating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 525 -530.

Schmidt, N., & Sarmat, V. (1983). Measuring loneliness in different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038 -1047.

Sears, D. O., Peplau, L. A. & Taylor, S. E. (1995). *Social Psychology*.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New Jersey.

Vincenzi, H., & Grabosky, F. (1989). Measuring the emotional/social aspects of loneliness and isolation. In M. Hojat, & R. Crandall(Eds.), *Loneliness: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Weiss, R. S. (1973). *Loneliness: The experience of emotional and social isolation*. Cambridge, MA: MIT Press.

부 록

정서적.사회적 고독척도

다음은 여러분이 요즘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질문지입니다.

문항 하나하나를 잘 읽은 다음, 자신이 얼마나 자주 그와같이 느끼는지를 가장 적합한 내용의 번호 위에 ○표 해주십시오.

- 거의 그렇지 않다면----->0
- 가끔 그렇다면----->1
- 종종 그렇다면----->2
- 자주 그렇다면----->3

- 1. 나에겐 친한 친구가 없다고 느껴진다0 1 2 3
- 2. 다른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렵다0 1 2 3
- 3. 나에겐 이성 친구가 없다고 느껴진다0 1 2 3
- 4. 내 고민을 얘기하면 가까운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느낀다.0 1 2 3
- 5.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느낀다.0 1 2 3
- 6. 나는 누구와도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기 어렵다고 느낀다.0 1 2 3

7. 나는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0 1 2 3
8. 나는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편안치가 않다.0 1 2 3
9.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0 1 2 3
10. 나는 어떤 친목 집단이나 조직에도 소속감을 느낄 수 없다.0 1 2 3
11. 나는 오늘 다른 사람과 교류를 가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0 1 2 3
12.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할 말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0 1 2 3
13.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평소의 내 모습과는 달라지는 것 같다0 1 2 3
14.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당황해 할까봐 두려워한다0 1 2 3
15. 나는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0 1 2 3

다음은 여러분이 요즘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질문지입니다. 문항 하나하나를 잘 읽은 다음 자신이 얼마나 자주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지를 가장 적합한 내용의 번호 위에 ○표를 해 주십시오.

- 거의 그렇지 않다면----->0
 가끔 그렇다면----->1
 종종 그렇다면----->2
 자주 그렇다면----->3

1. 나는 친한 친구가 없다0 1 2 3
2.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그들은 나를 이용하려 든다0 1 2 3
3. 나는 애인이나 이성 친구가 없다0 1 2 3
4. 나는 내 문제로 다른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다0 1 2 3
5. 나에게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0 1 2 3
6. 나에겐 개인적 생각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0 1 2 3
7.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0 1 2 3
8. 나와 진정으로 인간관계를 맺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0 1 2 3
9.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보낸다0 1 2 3
10. 나는 어떤 친목 집단이나 조직에도 속해 있지 않다0 1 2 3
11. 나는 오늘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0 1 2 3
12. 나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공통의 화제가 많지 않다0 1 2 3
13.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에 관한 것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0 1 2 3
14. 나는 부담스런 사교적 상황에는 가지 않는다0 1 2 3
15. 사람들은 나를 재미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0 1 2 3

신 순 욱

설 문 지

이 설문지는 여러분의 의식과 실태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각 물음에 대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직접 쓰거나 또는 자신의 상황이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에 √표하여 주십시오. 한 문항도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 처리 되므로 개인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 드리며 귀한 시간을 내주어 감사합니다.

1. 성별: 1)남___2)여___ 2. 학번 처음 두자리_____ 3. 출생년도: 19_____년
4. 소속대학: 1) 해사대학___2)해양 과학 기술대학___3)공과대학___4)국제대학___
5. 종교: 1)불교___2)기독교___3)천주교___4)유교___5)무종교___6)기타___
6. 주된 성장지역: 1) 대도시___2)중소도시___3)읍___4)면 이하___
7. 현재 주거상태: 1)자택___2)하숙___3)자취___4)기숙사___5)친지집___6)기타___
8. 동거 가족수: _____명
9. 부모님 생존여부: 1)양친 생존___2)양친 사망___3)부친만 생존___4)모친만 생존___
5)양친의 이혼이나 별거___6)기타___
10. 양친이 이혼했거나 별거한다면 당시 귀하의 연령: 1)만 3세 이하___2)3-7세 이하___
3)초등학교 때___4)중학교___5)고등학교___6)대학교___7)기타___
11. 아버지와의 관계: 1)매우 불만족___2)불만족___3)보통___4)만족___5)매우 만족___
12. 어머니와의 관계: 1)매우 불만족___2)불만족___3)보통___4)만족___5)매우 만족___
13. 현재 가족관계: 1)매우 불만족___2)불만족___3)보통___4)만족___5)매우 만족___
14. 가정의 사회 경제계층: 1)상류___2)중상류___3)중류___4)중하류___5)하류___
15. 생활비와 학비 충족도: 1)매우 부족___2)부족___3)보통___4)충족___5)매우 충족___
16. 현재 참여하는 과외활동(서클, 종교, 봉사 및 취미활동): 1)없음___2)1-2 개___
3)3-4개___4)5개 이상___
17. 대학내 친구숫자: 1)없음___2)1-2명___3)3-5명___4)5-10명___5)10명 이상___
18. 대학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 1)거의 없음___2)가끔___3)종종___4)자주___5)항상___
19. 학교수업 결석 정도: 1)거의 안함___2)가끔___3)종종___4)자주___5)항상___
20. 현재 친구관계: 1)매우 불만족___2)불만족___3)보통___4)만족___5)매우 만족___
21. 이성 친구: 1)있다___2)없다___
22. 현재 이성관계: 1)매우 불만족___2)불만족___3)보통___4)만족___5)매우 만족___